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보감회, 보험업계 자금세탁 관리 강화 요구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보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감사현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보험업계 감사기구인 보감회 산하 규율감사국(保监会稽查局)은 최근 보험회사 및 보험자산관리공사에 <보험기구 자금세탁 예방업무 연구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돈세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제도, 피감사 현황, 기타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 2007년 보험산업이 자금세탁 방지 업종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보험업계는 자금세탁 예방업무가 일상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자 보감회가 현황 파악을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까지 보험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가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이미 보험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이 국제적으로 일상화되어 있고, 중국 보험업계 또한 자금세탁 예방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보감회의 이번 조치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보험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공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불법 자금으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해약하는 방법으로 세탁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보험을 통한 자금세탁 방식이 점차 치밀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최근 회사 공금이 개인의 사금고로 흘러 들어간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등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감회의 판단임.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 중이지만 고객신분 확인의 어려움, 의심이 가는 계약에 대한 기준 모호 등의 이유로 자금세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보험회사들이 거액의 보험료 유출 가능성으로 자금세탁 예방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감회의 이번 조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상해증권보, 4/20)